

[로스쿨 합격기]

값지지 않은 과정은 없다

조혜진

- 상명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법대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I. 들어가며

로스쿨 입학 뒤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지인들이 1차 합격자 통보를 받은 후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로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축소된 이후에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 때문인지 신생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인지 학부에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선배와 동기들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에 로스쿨 진학 여부를 결정한 이후 준비에 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 홀로 발품을 팔아가며 입시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저는 실력이

다른 수험자들에 비하여 실력이 좋았다기 보다 운이 좋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적인 로스쿨 입시의 성공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수기가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모쪼록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로스쿨 진학까지의 고민들

1. 방황하던 학부 초반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법학과만을 지원할 정도로 법대 진학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학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학부 생활 초기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저는 법학 공부에 쉽게 흥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수업 내용이 딱딱하고 전문적인데다가 추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생소할 뿐 아니라 법률관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성적 또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치외교학과 사회학 수업들은 상대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에 전공과목보다 더 많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교과서에서만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새롭게 창설된 제 1기 인권법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외활동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름다운가게 활동

학내 활동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게 되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직접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여 앞으로 진로의 방향을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대외 활동 중에서 아름다운커피에서 대학생 공정무역 캠페이너에 지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불평등한 국제무역을 시정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자하는 공정무역운동은 인권법학회에서 다뤘던 외국

인 노동자 인권신장 운동의 연장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해외 국제개발과 공정무역 사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파티를 개최하고 거리 캠페인도 진행하여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보도되었고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3. 방향성 모색

외부 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법학을 공부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학에 마음을 두게 되자 많은 예비법조인들이 꿈꾸는 인권변호사라는 꿈이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와 노동 분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노동 특히 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노동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현재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국제경제법과 경제법을 수강하게 되면서 그 동안의 대외 활동 분야와 법학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전공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를 보는 시각이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외교학을 제2전공으로 수학하였습니다.

Ⅲ. 로스쿨 입시 준비 과정

1. 첫 해 실패 경험

로스쿨에 가야겠다는 결정이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졌기에 마음은 조금했지만 조연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막연히 LEET시험 준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학기에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LEET 시험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드물게 로스쿨 1기와 2기로 진학한 선배들도 로스쿨 입시는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해 주어서 로스쿨은 쉽게 갈 수 있다는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통과해야하는 졸업 시험도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LEET 준비에만 집중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로스쿨 입시는 생활 속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방학 두 달만 집중해서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작 방학이 되자 마음처럼 곧 바로 시험 준비에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 전까지 매일을 집중하여도 모자를 시간이었음에도 생활이 다잡아지지 않아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로 시험을 보게 되었고 점수는 무척이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받아들고는 이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나간 제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자는 심정에서 원서를 썼지만 결과는 아무 곳에서도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이렇게 준비해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고민 끝에 심기일전하여 재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본격적인 준비: LEET

로스쿨 입시 첫 해에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입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고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다보니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입시 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여 입시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시험 준비의 기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3월 동안에는 언어영역과 추리영역 모두 기존 4회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유형을 해석해 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동안 누적된 기출 문제의 절대적인 양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1회부터 3회의 문제 유형과 4회의 문제 유형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부족함을 달래기 위해 LEET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PEET와 MEET 문제를 풀어 보면서 유형을 익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4회부터 지문이 길어지고 난이도 또한 높아져서 전체 글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익숙한 주제의 지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시험 준비 과정에서 파악하여 시험 당일에 익숙한 유형의 지문부터 읽어다가 시험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28개 전후의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추리영역은 어느 정도 정해진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형에만 익숙해지면 각각의 유형의 문제해결 구조에 따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기출문제들을 몇 차례 풀어본 이후에는 시중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유형에 친숙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나 자주 사용하는 명제 공식들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이해 문제들에 비하여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은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고 언어이해나 추리영역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5월부터 시간을 내어 글을 쓰는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해 지문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다시 재정리할 수만 있어도 LEET에서 중간은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말마다 한 편씩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유사 문제를 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3. 공인 영어시험

기존에 받아두었던 TOEIC 점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공인영어시험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LEET시험 준비에 앞서 영어성적을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첫 해에 LEET 준비를 하면서 매 달 TOEIC 시험을 보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비효율적이었으며 어느 공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TOEIC은 학원을 다니든 혼자서 공부하던 단기간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도 좋고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조금만 하면 금방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어 성적이 생각보다 쉽게, 단기간에 오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시든지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LEET 시험을 치른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한번에서 많게는 두 번의 TOEIC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때에는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매우 조금 해질 수 있어 오히려 실력발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의 TOEIC은 점수가 안 나와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정도의 점수를 만든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제2외국어 준비

제 2외국어 성적은 로스쿨 입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인턴 활동을 할 때부터 해외 문서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언어를 하나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느꼈으며 주변에서도 나중에 국제무역 분야의 일을 할 때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상위권 로스쿨들은 제2외국어라는 요소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전부터 조금씩 공부하던 프랑스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DELF 시험은 수시로 있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서를 넣기까지 점수를 받기 어려워 8월에 응시할 수 있는 TCF로 응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현지 사정으로 갑자기 8월 시험이 10월로 연기되면서 프랑스 자격시험을 원서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 공부로 계속 하되 로스쿨 원서에 DELF를 대체할 수 있을만한 언어능력 시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LEET가 끝나자마자 약 한 달 정도를 준비하여 한자능력시험 3급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시험에 합격하여 원서에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제2외국어를 LEET 준비기간 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인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아 상대적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를 느껴 공부를 하였지만 로스쿨 입시에서 무리하여 제2외국어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2외국어를 고려해 보고 중장기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자소서와 면접

8월에 LEET 성적을 받아두고 무척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분명 점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좋은 성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섯트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고 안정적으로 원서를 지원하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간보다 어떤 학교에 지원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결국은 터무니없이 상향 지원은 하지 않되 적어도 합격했을 때 기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기준 아래 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학교를 선택한 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기간은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정량적인 부분에서 모자란 점을 정성에서 만회하고자 자기소개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대외활동 경험들을 강조하는 것이 스스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동기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작성 기간이 긴 편은 아니었으나 여러 번의 퇴고를 거쳐 완성도 있는 글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글의 검토를 부탁하지 않고 부모님과 주변의 친구 한 두 명에게 수없이 퇴고를 받았었습니다. 저를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은 점이 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소서은 만족스럽게 작성했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면접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10월부터 특임장관실 인턴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 합격통지를 받게 되어 기쁘다는 생각보다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시험일이 약 보름 정도 남은 시점부터 급하게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면접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앞에 닥친 면접을 준비하자니 스테디를 꾸려 여러 사람들과 의견 교환을 갖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단시간에 논리를 갖추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에 올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 일정 수준의 답안은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학적인 부분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긴장을 하거나 부담감이 들지 않아서 두 학교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때는 한 교수님께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DELF 시험을 준비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영어와 프랑스어가 뒤섞여져 이상한 문장이 튀어나왔던 때였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다른 질문들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면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 마치며

제 합격 통지는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입시 과정을 마치고 친구와 장기로 인도 여행을 나가 저 멀리 타국에서 전화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니다. 그 당시에는 제 일인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 한 동안 잊고 살다가 귀국하고 OT에 다녀온 이후에야 로스쿨 입학이라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이라는 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로스쿨 입시를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입시 내내 저에게 가장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각 학교의 입시 기준마다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달라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여타의 취업 준비보다 불명확성에서 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 한 순간도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입학 후에도 제가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나중에 교수님들께 개인적으로 왜, 어떤 기준에서 저를 뽑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언급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험난한 3년의 과정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드러나는 학생을 뽑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학점과 좋은 공인영어성적 등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의 끝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법률가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진학은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인생의 청사진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스쿨 합격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